

2021 국악창작곡 개발 '제15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' 2차 예선 심사결과

□ 심사개요

- 심사명 : <2021 국악창작곡개발-제15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> 2차 예선 심사
- 심사일시 : 2021년 5월 22일(토), 09:30~17:30
- 심사장소 : 국악방송 12층 공개홀
- 심사내용 : 1차 예선에서 선정된 20곡 심사 (노래곡 11곡, 연주곡 9곡)
- 심사항목 : 대중성(30%), 독창성과 창의성(30%), 국악적 요소의 창조적 계승(20%), 음악의 완성도(20%)
- 심사위원 (*가나다 순)

번호	이름	주요 프로필	비고
1	김나니	- 전) 그룹 '프로젝트 락' 멤버 - <셰프의 팔도밥상 Plus>, <우리가락 우리문화> 진행	
2	김윤곤	- The University of the Arts 졸업(M.M.) -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객원교수 - 케이프타운 오페라단 '포기와베스' 아시아 초연 협연 등	
3	박승원	- 월드뮤직그룹 '공명' 멤버 - <소리꾼>, <화전가>, <유리동물>, <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> 등 음악감독	심사위원장
4	송현민	- 음악평론가 - 월간 <객석> 편집장	
5	황호준	- 뮤지컬, 오페라, 소리극 등 국악관현악 및 전통실내악 작·편곡 - '13 KBS 국악대상 작곡상 수상 - '19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	

□ 심사결과

- 총 10곡 선정 (노래곡 4곡, 연주곡 6곡) ※ 경연순서 순

경연순서	팀명	곡명	장르구분
2	이나연	겨울 지나 봄	노래곡
5	오뉴월	PIT-A-PAT	연주곡
6	시도	아리아리	연주곡
9	양상블 카덴차	回光返照 (회광반조)	연주곡
10	Team. Odyssey	Odyssey	연주곡
12	창작아티스트 오늘(ONEUL)	자유(FREEDOM)	노래곡
13	연리지	왼손으로 쓴 편지	연주곡
15	JJAM	Urban Sinawi	연주곡
16	프로젝트 양상블 련	조선 가물란(코길이를 위한 헌정곡)	노래곡
20	신수동 3평	불청객	노래곡

○ 주요 심사평

이름	주요 심사평
김나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심사를 떠나 동시대에 함께 우리 음악에 대해 고민하고 국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. - 어려운 시기에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 무대에서 멋지게 연주하는 모습들을 보며 '국악의 미래가 밝다'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. - 다만 여러 아티스트들이 모여 하나의 팀을 이루고 음악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봅니다. 음악을 만들고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나는 것은 나의 메시지, 곧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번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 참가팀들은 국악 전공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연주자들이 팀을 이루어 경연을 펼쳤는데 각 장르에 대한 서로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정확한 메시지를 담아 꾸준히 활동해나간다면 모든 팀들이 더욱 더 발전하고 빛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
김윤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두가 다른 편성과 메시지로 다양한 울림을 선사했습니다. - 음악이 좋고 나쁨으로 평가할 수 없었고, 음악적 역사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여 평가하였습니다. - 코로나로 인해 나라마다 직접적 왕래는 어려워도 세계의 음악과 문화가 더욱 왕성하게 교류하여 감동의 시너지를 이루어가며 21c를 이끌어 갈 무대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
박승원 (상주위원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1c한국음악프로젝트에 참여한 20팀의 개성 있고 열정적인 무대 잘 봤습니다. - 기악팀과 보컬팀 그리고 각각 팀의 고유의 다채로운 연주를 평가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열정적인 무대였습니다. - 이번 평가는 각각의 팀이 동시대성을 잘 반영하면서도 대중 친화적이면서, 전통 음악의 예술성을 얼마만큼 잘 표현했는지를 살펴보는 무대였습니다. - 언제나 새로운 무대에 도전하는 열정적인 무대를 응원하며 한국음악의 다양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.
송현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슷한 또래의 참가자들이 만든 경연으로 심사하다보니 그 세대의 공통점과 차이, 음악적 특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심사 시 몇 개의 기준점을 세워 심사-채점했고 이에 부합할수록 좋은 점수와 호의적인 시선으로 지켜보았습니다. ① 참가자들이 '연주' 외에 작품을 '구성', '작곡'하는 가운데 능동적인 창작자로서의 역할을 잘 살렸는가? 본 경연은 기존 커버나 작품보다 새로운 작품을 기다리는 무대이기 때문이다. ② 기존 작품과 국악 신(Scene)에서 차이가 나는 확실한 개성을 보유했나? 이러한 개성은 훗날 이들을 대표하는 코드이자 음악적 정체성이 되기 때문이다. ③ 모방을 하였더라도 '창조적 모방'을 했는가? 아직 신(Scene)에 대한 경험이나 시장에 대한 조사와 학습이 부족한 세대일 수 있다. 그런 점에서 롤모델을 삼거나 본인들의 콘텐츠로 흡수하고 싶은 기존 작품과 스타일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. 이럴 때에 지원자가 얼마나 '창조적 모방'을 했는가는 중요하기 때문이다. ④ 등장과 무대 준비, 공연과 퇴장 모두가 심사의 대상이 되는 시간이다. 공연 외의 무대 전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단합력과 인간적인 유대를 잘 유지하는가? ⑤ 피아노와 드럼 등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고, 대중음악처럼 대중적 음향을 낼 수 있는 악기 사용률이 지원자마다 높고 사용 비중도 크다. 하지만 국악에 비중을 둔 경연인 만큼 앙상블을 이루는 여러 '국악기들'의 사용과 활용이 균형을 잘 잡혀있게끔 음악과 연주자 구성이 잘 되어 있는가? ⑥ 성악곡의 경우 관객과 소통하는 가사와 내용도 중요하다. 그런 점에 있어서 전통 성악적 창

	법과 잘 어울리면서도 관객이 향유하고 적당히 따라 부를 수 있는 내용과 현대어로 구성되었는가?
항호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 참가자가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음악 내용을 구축하기 위해 고심한 시간들이 느껴져 경연을 보는 내내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. - 작곡 행위의 결과물로서 개별 곡의 완성도 보다는 연주 행위를 통해 구현되는 음악 그 자체를 평가의 근거로 삼았습니다. - 연습량이 축적되어 연주적 완성도가 돋보이는 작품과 음악적 아이디어가 참신한 참가자들은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를 품기에 충분했습니다. - 한편 기존에 이미 익숙한 다소 진부하게 느껴지는 스타일에 머물러 있거나 연습량이 느껴지지 않는 급조된 듯한 참가자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.

□ 향후 일정(안) ※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구분	기간 및 장소	비고
본선 진출팀 대상 '오리엔테이션' 진행 - 본선 무대 연출 관련 안내 - 음원녹음 안내, 멘토링 일정 조율 등 - 프로필 사진 및 영상 이미지 디렉팅 일정 조율 - 기타 질의 응답	6월 2일(수) 14:00 / 국악방송 대회의실	팀별 대표 1인 참가 필수
본선 진출팀 대상 멘토링 진행	6월 중 / 외부 연습실 또는 국악방송	희망 팀에 한해 진행
프로필 사진 및 영상 촬영	6월 초~중순 / 외부	
음원 녹음	7월 2일~7월 15일 중 / 외부 스튜디오	
국악방송 라디오 출연	7월 3~4주 중 / 국악방송	
본선 (실연심사 / 공개)	8월 5일(목), 19:30 / 국립국악원 예약당	

□ 문의처

o 국악방송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담당자 02-300-9973 / jinsaem@igbf.kr